

남극 세종과학기지 가는 광주기상청 진도기상대 양필호 대원

“대기분석 통해 온난화 원인 찾겠다”

“남극은 무한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과학 실험실’입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극한 환경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남극 세종과학기지 제22차 남극 월동연구대에 최종 선발된 광주지방기상청 진도기상대 양필호(44·기상 7급) 주무관. 지난 11일 진도에서 만난 양씨는 미지의 대륙 남극 원정을 앞두고 긴장감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10대 1 경쟁률 뚫고 월동대 선발

그는 요즘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남극 원정에 필요한 정보나 준비물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두기 위해서다.

양씨는 내년 1월 3일부터 이듬해 2월까지 대기·지질·지구물리·생물자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월동대원 17명과 함께 남극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양씨의 주요 임무는 기상예보·관측 및 연구, 관측장비 관리 등이다.

양씨가 남극행을 선택한 이유는 남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남극생활을 경험하고 자연환경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올해로 11년째 기상청에서 근무 중인 그는 여수·흑산도·무안기상대 등을 돌며 주로 기상관측·예보 업무를 담당하면서 남극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 동시에 대기전문가로서 꿈도 키워왔다.

하지만 남극으로 가는 관문은 쉽지 않았다. 부인 박용숙(여·40)씨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들 준석(14)군과 딸 은진(12)양도 눈에 밟혔다. 남극을 다녀온 직원들의 말을 전하는 등 끈질긴 설득 끝에 아내의 반대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아이들도 양씨를 이해하게 됐다.

관문은 또 있었다. 높은 경쟁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신만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었다. 양씨는 지난 2년 동안 근무시간을 짬짬이 이용, 기상관측과 연관된 통신과 전기, 전산 등의 관리기술을 틈틈이 익혀갔다. 이제는 기상장비와 통신, 전기를 혼자서 다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숙련된 전문가가 됐다.

결국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기상청은 양씨를

제22차 월동대원으로 선정했다. 양씨는 “남극 생활이 결코 녹록치 않았지만 어렵게 남극 원정에 오른 만큼 남극의 대기 부문에 대한 연구활동을 열심히 할 계획”이라며 “최고의 월동연구대원이 돼서 돌아오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기상예보·관측 연구 임무 수행

양씨는 지난 6일 동안 인천 해양경찰 특공대에 서 극지의 신비를 깨기 위해 극한 훈련까지 받았다. 그는 1년 동안 세종기지에서 하루 네 차례 6시간 간격으로 기상측정을 해 남극 칠레공군기지로 기상정보를 전해준다. 이 밖에도 남극의 대기와 기후변화 등에 대한 연구활동도 할 예정이다.

양씨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미라저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극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남극에 다녀온 뒤 국내 기상관측 등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 개인적으로 남극의 사진을 많이 담아 오고 싶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양필호 기상 주무관이 지난 11일 진도군 의신면 침탈산(높이 485m)에 위치한 광주지방기상청 진도기상대 사무실에서 통신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다 좋은 건데... 신의자매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구사시 재직 및 상담안양

광주서 3인조 택시 강도

폭행 후 금품 뺏고 도주 북부경찰서 수사 나서

강도로 돌변한 승객 3명이 택시 기사를 구타한 뒤 돈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개인택시기사 A씨는 지난 11일 밤 8시께 광주시 동구 황금동 D아파트 앞길에서 20~30대로 보이는 남자 3명을 태워 이틀이 요구한 목격자인 북구 금곡동 무등산장으로 향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범인들은 A씨를 폭행한 뒤 현금 30만원 등을 빼앗고

A씨를 차량 트렁크에 30여 분 동안 싣고 다니다가 동구 지산동 M아파트 인근 골프연습장 앞길에 A씨와 차량을 남겨두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범인들의 주먹에 맞아 얼굴 등을 다쳤다.

A씨는 트렁크에 있는 비상탈출 레버를 이용, 탈출한 뒤 행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범행 수법으로 미뤄 전문 택시강도범의 소행으로 보고 동종 전과자를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으며, 조씨 등을 대상으로 여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촛불 여대생 사망설’ 유포자 실형

법원, 징역 10개월 선고

촛불시위와 관련해 ‘여대생 사망설’을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는 12일 촛불시위에 참가했던 20대 여성이 경찰에 의해 목이 찢려 숨졌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기통신기법 위반 위반)로 기소된 모 지방신문보급소장 겸 취재기자 최모(47)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목격자 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방도 전경이 탈진해 쓰러졌고 호흡곤란을 일으켜 구조 호흡과 심장 마사지를 받은 뒤 승합차로 이송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최씨의 글처럼 시위 참가자가 전의경에 의해 목 졸려 숨지거나 이로 인해 전의경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올해 6월2일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접속해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20대 여성 참가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는 내용의 글을 편집해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광주 지체장애인들의 ‘송년잔치’ 500여명이 참석했다.

사단법인 광주시 지체장애인연합회는 12일 오후 광주시 북구 매곡동 적십자수련원 체육관에서 ‘2008년 지체장애인 송년잔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지역 지체장애인 및 가족·후원자·자원봉사자 등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30대 남, 내연녀에 흥기 휘두르고 도주

30대 남성이 내연녀에게 흥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오후 4시께 광주시 남구 노대동 모 아파트에서 A(39)씨가 내연녀 S모(여·46)씨에게 흥기를 휘두르고 도주했다. S씨는 머리와 팔 등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내연녀인 S씨를 폭행해 구속됐다. 최근에 교도소에서 출소했으며, 이날 B씨를 찾아가 앙갚음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광주·전남 휴일 ‘칼바람’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은 맑은 날씨에 예상되지만,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인 13일 광주·전남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이 낀 맑은 날씨에 예상된다”며 “지역에 따라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하지만, 휴일인 14일은 다소 강한 바람이 불면서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6도. /이종형 기자 galee@kwangju.co.kr

신안군수 선거운동원 불법 자금 수사

검찰, 주민 10명 체포·자금 흐름 추적

검정기관 대출비리 관련 수사를 벌이던 검찰이 신안군 특정지역 일부 주민과 자치단체장 선거를 도운 운동원에게서 거액의 자금 조달 의혹을 받고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자금이 자치단체장 선거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12일 광주지검 목포지청과 신안군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K(53)씨 등 신안군 압태면 주민 10명을 정치자금

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또 K씨를 포함해 지난 2006년 10월 신안군수 재선거 당시 후보였던 박우규 현 군수의 선거를 도운 3명의 집을 최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체포된 주민과 군수 선거운동원 중 일부가 모 저축은행을 통해 수십억 원의 불법적으로 대출한 혐의를 받고 대출 경위와 이 돈이 선거자금으로 쓰였는지 등 돈의 흐름

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이번 수사는 예금보험공사의 부실대출 감사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이 적발되면서 예보 측의 수사 의뢰로 이뤄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관계자는 “주민 여러 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고, 은행의 대출비리 관련 수사를 벌이면서 자금의 흐름을 조사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로부터 수십억 원을 불법적으로 대출한 혐의를 받고 대출 경위와 이 돈이 선거자금으로 쓰였는지 등 돈의 흐름

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이번 수사는 예금보험공사의 부실대출 감사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이 적발되면서 예보 측의 수사 의뢰로 이뤄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관계자는 “주민 여러 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고, 은행의 대출비리 관련 수사를 벌이면서 자금의 흐름을 조사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로부터 수십억 원을 불법적으로 대출한 혐의를 받고 대출 경위와 이 돈이 선거자금으로 쓰였는지 등 돈의 흐름

성폭력범 최장 15년 치료 후 잔형 집행

법무부 14일부터 시행

법무부는 성폭력범을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해 치료한 뒤 잔형 집행을 하고 심신장애자나 마약·알코올 중독자 등 다른 대상과 분리된 전문 치료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 치료감호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치료감호법은 소아성기호중 등 정신

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해 최장 15년까지 치료한 뒤 잔형을 집행하고 심신장애자나 마약·알코올 중독자 등 다른 대상과 분리된 전문 치료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자가 연간 100명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 내 100

명 수용 규모의 치료·재활센터를 설립하고, 2010년 12월에는 2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는 치료·재활센터를 신속할 예정이다. 또 성폭력범죄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치료감호소 심신장애자나 약물·알코올중독자 등 다른 치료감호자와 별도 수용하고 전문 의료인력이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명 수용 규모의 치료·재활센터를 설립하고, 2010년 12월에는 2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는 치료·재활센터를 신속할 예정이다. 또 성폭력범죄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치료감호소 심신장애자나 약물·알코올중독자 등 다른 치료감호자와 별도 수용하고 전문 의료인력이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자녀납치 협박 전화

거액 챙긴 중국인 3명 검거

여수경찰은 부모에게 ‘자녀를 납치했다’고 협박전화를 걸어 거액을 챙긴 중국인 불법체류자 3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 유모(23)씨 등은 지난달 24일 조모(여·41·경기도 광명시)씨에게 협박전화를 걸어 300만원을 받아채기는 등 6명으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입금 받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과 밀입국자인 이들은 전화 협박조와 인출조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게 ‘얼마 전 교도소를 출소한 사람이고, 아들의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으며, 조씨 등을 대상으로 여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음식물 쓰레기 시비 이문 주먹질

○2년 전부터 잦은 시비로 불신이 깊어진 아파트 이웃끼리 음식물 쓰레기 냄새 문제로 주먹다짐을 벌이다 두 가족이 나란히 경찰서로 향했다.

○1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폭력 등의 혐의로 입건된 A(여·49)씨 가족 3명과 B(여·59)씨 부부 등 두 가족은 전날 오전 8시5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모 아파트 10층에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놓고 다투다 서로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아파트 같은 층에서 마주보며 사는 이들은 ‘자동차가 긁혀도 내 탓’ 복도에 가래질이 있어도 내 탓’하며 감정의 골이 깊었는데 이날 A씨 가족이 음식물 쓰레기를 골방 야외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복도 앞에 놓았다는 이유로 서로 주먹다짐을 벌였다고.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서로 ‘저 집 식구들 때문에 못살겠다’고 하소연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 보인다”고 고개를 절레 절레 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2분 해질 17시 21분 달돋이 17시 21분 달질 08시 06분 주말엔 가족과 오손도손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며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다. 광주 1/9C, 목포 2/9C, 여수 4/10C, 완도 1/11C, 구례 -3/9C, 애남 -2/11C, 장흥 -2/11C, 고흥 -2/12C, 순천 -3/9C, 영광 1/8C, 진도 0/11C, 전주 0/8C, 남원 -3/9C, 흑산도 6/8C.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14(일) 15(월) 16(월) 17(화) 18(수) 19(목) 최저/최고 -2/6 -3/10 0/13 2/11 -1/7 -2/9